

# 이용대 “고향팬 응원 업고 금 따겠다”



내 이름 딴 체육관 뿌듯...가족들 만나 기분 좋아  
고성현과 복식 출전...“최고의 기량 보여줄 것”

**배드민턴** “정상급 선수들로 준비한 대회, 성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순이 낳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이용대(27·삼성전기)가 7일 화순하니움스포츠센터에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첫 일정을 소화했다. 이용대는 이날 오전 열린 독일과의 단체전 16강 경기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고성현과 남자복식에서 호흡을 맞춘 이용대는 2-0(21-9 21-15)으로 포인트를 가져오며 가볍게 몸을 풀었다. 오후에 진행된 독일과의 8강전에서는 코트 대신 관람석에 앉아 응원을 통해 한국의 승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용대는 “고향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이런 종합 대회를 하니가 감회가 새롭다. 고향에서 한다는 자제로 편안함이 느껴진다. 또 어느 대회에서보다 음식이 정말 잘 나온다. 익숙한 곳이라서 생활하는 것, 먹는 것 모두 불편함이 없어서 심리적으로 편하다”고 말했다.

익숙한 곳에서의 편안함이 있지만 그만큼의 부담감도 있다.

이용대는 “다른 곳에서 경기를 할 때와 달리 응원소리도 크고 한국말이 들려서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드는 것도 있다. 앞선 카잔 대회에서 운이 좋게 2관왕도 했던 만큼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이번 대회를 위해

국가대표팀 선수들로 팀을 꾸려서 나왔다. 좋은 전력을 갖췄고, 상대가 대학생들이 만큼 이번 대회를 즐기려고 하고 있다. 좋은 성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언급했다.

본격적인 대회 레이스를 앞두고 컨디션도 좋고 가족들을 만나 기분도 좋다.

“부모님이 오셨는데 어제, 오늘 한 경기만을 뛰었다. 많이 뛰어야 했는데 아쉬워하실 것 같다”고 웃은 이용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이용대 체육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다시 한번 환한 표정이 됐다.

이용대는 “있고 있다가 화순에 오게 되면 내 이름이 쓰인 이용대 체육관을 보게 된다. 못한다고 이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고(웃음). 아무래도 내 이름을 딴 체육관이라 시설을 꼼꼼하게 보게 된다. 관중석을 더 크게 만들어서 국제 대회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다. 뿌듯하다. 정말 많이 뿌듯하다”고 미소를 지었다.

유니버시아드는 올림픽 정상 탈환을 위한 출발선이기도 하다. 이용대는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해서 유리한 조건에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다. 랭킹 유지에 신경 써서 다음 일정을 잘 소화하고 최고의 기량으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7일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광주U대회 남자 배구 한국과 미국의 경기에서 서포터즈들이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특별취재단=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양출신 여자축구 골키퍼 민유경 “제가 직접 뛰는 모습 부모님께 보여드려 신나요”



“부모님께 직접 뛸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좋아요.”

**축구** 광양여고 출신의 민유경(20·서울한양여대)에게 이번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한국여자축구대표팀의 수문장으로 뛰는 영광의 무대이다.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딸로 모처럼 모습을 하게 된 시간이기도 하다.

축구강국으로 꼽히는 한국이지만 국내리그는 열악하다. 특히 여자 축구의 입지는 좁다. 최근 막을 내린 여자 월드컵을 통해 그나마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민유경은 자신이 뛰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자주 보여드리지 못했다.

민유경은 “큰 경기를 해도 가족들이 뉴스로만 보고 들어야 했다. 이번에는 직접 제가 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순천에서 부모님과 이모가 오셔서 응원을 해주신다”고 미소를 지었다.

경기를 잘 치러서 더 오래 가족들에게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민유경. 그의 바람대로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은 3연승을 달리며 A조 1위로 8강에 진출했다. 8일 오후 4시30분 호남대체육관에서 만나야 하는 다음 상대는 난적 프랑스다.

딸을 응원하기 위해 매년 경기장을 찾았던 어머니 김귀례(54)씨는 기뻐하는 심정으로 8일을 기다렸다.

김 씨는 “유경이가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걱정을 했다. 딸을 더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프랑스와의 경기 승리를 바라고 있다. 부상없이 좋은 경기를 해서 딸



의 경기를 더 보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또 “딸이 어렸을 때부터 큰 대회에 나가도 뉴스를 통해서 결과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려서 딸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너무 좋다.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경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울면서 많이 말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최고의 자리를 지키면서 한국을 대표해서 뛰는 걸 보니 기쁘고 고맙다. 관중석에 앉아있지만 해도 더운데 그라운드에서 뛰는 딸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좋은 모습으로 대회 잘 치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자축구대표팀도 7일 영광스포티움에서 열린 캐나다와의 조별예선 3차전에서 3-1로 3연승을 거두며,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9일 오후 4시30분 정읍종합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 송중훈, 男 사브르 단체전 동메달 획득



광주 출신의 펜싱 대표팀 송중훈(22·한국체대)이 남자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에 이어 단체전 우승도 노렸지만 실패했다.

**펜싱** 송중훈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정호진(21·동의대), 박준영(20·한국체대), 강민규(23·국군체육부대)와 함께 출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들은 동메달 결

정전에서 폴란드를 45-42로 물리쳤다. 앞서 열린 준결승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40-45로 역전패 했다.

금메달은 프랑스가 가져갔고 우크라이나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프랑스는 여자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도 러시아를 45-39로 제압해 이날 펜싱에 걸린 금메달 2개를 휩쓸었다. 한국은 여자 에페 단체전 8강에서 프랑스에 38-45로 저탈락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